역사성·정신 외면한 茶 종목지정 무의미

화가의 차문화 엿보기 ④



김호석
수묵화가



녹차는 소수의 문화이며, 쉽게 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성을 바탕에 둔 다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류와 변화 과정에 의의가 있다.

한국 차에 대한 연재를 하는 동안 여러 다인들을 만났다. 그 분들로부터 시대에 대한 통찰과 문화재 행정의 난맥 그리고 자본이 점령한 세상의 한계에 이르는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다인들은 녹차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에 대해 고무되어 있었다.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며 문제제기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차가 가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날카롭고 직접적인 어조로, 그들은 한국 차의 원형과 역사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제다장'의 지정에 앞서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열람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지정조사 연구용역'이라는 단어의 선택에 의구심을 품었다. '지정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도 '지정조사'라 정한 이유가 의아했다. 또 문화재청이 제다부문에서 종목을 지정한다는 예고 사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원래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종목부터 선정한 뒤, 그 종목에 합당한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다 종목 자체를 지정예고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과연 차가 범용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일정한 레시피에 의해 기능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또 이러한 종목지정에 전승의 맥이 없다는 점에서, 녹차를 지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종목 지정의 예로 김치와 아리랑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행위자가 되는 보편적 문화로, 특정 지역을 바탕에 두고 무수히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용되어 왔다는 점도 종목 지정의 이유이다. 따라서 원류와 발전 과정이라는 역사성보다 현재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녹차는 소수의 문화이며, 쉽게 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성을 바탕에 둔 다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류와 변화과정에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따라서 차를 종목지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차는 제다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고도의 미학이 중심이다. 이들은 충분히 연구 ·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할 경우, 그 원형 자원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원형 자원이 기술과 예술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차를 평가하고 종목지정을 할 경우, 문화의 가치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차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한국 차는 역사성과 계승성을 가진다. 역사성은 개인과 개인에 의해 전승되어 계보를 이룬다. 제다는 고도화 되고 치밀한 기술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녹찻잎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계승성은 지금도 전승활동이 지속되는지의 여부에 해당한다. 이렇듯 역사성과 계승성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중요한 핵심이다.

둘째, 한국 차는 덖음 차이다. 차를 고르게 덖는 기술은 그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주요하다. 크고 작은, 굵고 얇은 잎을 동일한 정도의 차로 만들어 하나의 맛과 향을 이루는 과정은 경이롭다. 좋은 차는 일단 물에 찻잎을 넣었을 때 찻잎의 색이 일정하다. 생육 조건이나 환경들은 물론 입의 대세와 두께 등이 다름에도 하나로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녹차의 색과 향 그리고 기운을 장악하는 놀라운 비법인 것이다. 그것은 제다인의 기술이자 정신성이며 고유의 미학이 응집된 결과이다.

셋째, 한국 차는 맑고 온 몸을 가볍게 만든다.

한국 차는 그 맛이 독특하다. 맑고 투명하며 시원하다. 과연 세계 여러 나라 녹차에서 한국 차처럼 이런 맛과 향 그리고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변영섭 교수는 우리의 차에 대해 "인류가 추구하는 것 중 담박소쇄(澹泊瀟灑)가 가장 보편적인데 그 중 최고의 경지에 오른 차는 가장 맑고 시원한 것 중에서도 더 맑고 시원하다"고 말한다.

맑고 시원함은 인간 최고의 이상이요 가치이다. 다른 차는 맑기는 하지만 맛이 밋밋한데 최고로 제다법을 적용한 한국 차는 시원한 맛이 있다.

넷째, 한국 차의 제다 기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그 맛과 향에서도 고유성을 갖는다. 한국 중국 일본에는 모두 녹차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작설차만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녹차는 떫기도 쓰기도 맑기도 다 가능하다. 그런데 차에서 오미를 느낄 수 있는 차는 한국의 차뿐이다. 또한 한국 차에는 신기 미묘한 향이 있다. 청량감이 있으며 심폐가 시원해진다는 포괄성을 가진다. 이점이 한국 차의 고유성이자 제다장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다섯째, 한국 차에서 주요한 연구과제는 전통성의 보장과 활용이다.

한국인에 의해 유지되어온 제다기술은 역사성 있게 연찬되어 왔다. 그러한 한국적 가치와 역사성, 한국 차의 원형은 무엇인지, 중국으로부터 전래해 온 차 문화가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 태어났는지, 나아가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 방식이 어떻게 변질 · 왜곡되었는지 등이 연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로부터 소급하여 찾아야 한다. 이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조선 후기의 차 문화이며, 초의와 응송 스님을 통해 한국 차를 중흥시킨 다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하고 화려한 음료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 녹차는 무수히 많은 차 음료 중 하나일 뿐이다."



제다는 개인의 차가 크다. 게다가 특수한 개개인의 제다법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진다면, 그 범용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맥의 역사성과 정신성을 무시한 채, 차만 종목지정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전체 한국 차가 노정하고 있는 미흡한 제다기술은 극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나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분별하게 들어온 중국 기술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국제다의 원형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종목 지정이 되면 외래 차의 오염을 씻어 내기는커녕 중국과 일본차의 영향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 일례로 녹차는 일본의 green tea에서 온 용어이다. 이는 홍차와 대척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깊은 통찰을 바탕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의 차가 그 특성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녹차라는 용어가 범세계적으로 통용된다하더라도 한국 차의 특수성을 보전하고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작설차' 또는 '차'라는 용어의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 제다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예술적 기량에 의해 발현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 특수 기술이 필요하다면 종목이 아닌 제다 작법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다는 개인의 차가 크다. 게다가 특수한 개개인의 제다법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진다면, 그 범용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연구원들이 차를 평가했던 과정이다. 한국 차의 원형과 맥이 아닌 '차'의 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원들의 이해 정도를 의심케 한다. 그들이 한국 차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이러한 평가의 균형점은 지켜졌는지, 연구자 중 전승과 역사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차 문화 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제다의 계승에 대해 충분한 이해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한국 차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 가능성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치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연구결과는 제다라는 큰 문화적 요소를 간과한 듯 보인다. 한국의 차 연구를 통해 우리의 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종목지정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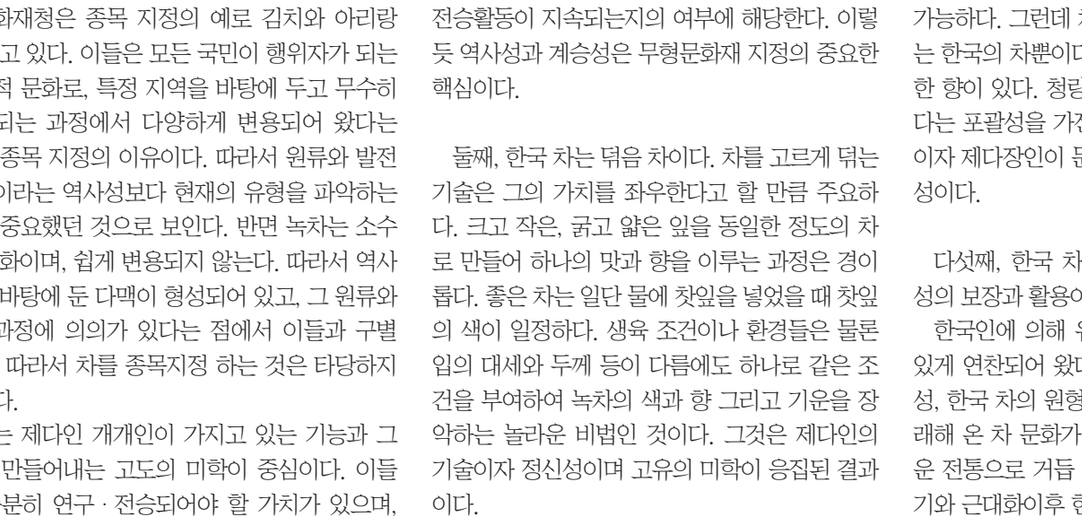
지금 국민들은 녹차의 지정 여부에 큰 관심이 없다. 다양하고 화려한 음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 녹차는 무수히 많은 차 음료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녹차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큰 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려먹는 방식의 녹차도 티백 형태가 주가 되면서 '찻잎'이라든지 '제다' '다도' 등의 개념보다 '쉽게 우러난다'의 표어가 익숙해졌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한국 차의 역사성과 원형적 가치를 규명하고 어느 시기에 변용 변질 되었는가를 가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차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면밀히 연구해 나가야 한다. 먼 훗날 한국 차에 대해 다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국가는 이 원형 자원을 연구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전통문화가 그 뿌리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나, 시대에 조응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 일을 방기하거나 방향을 달리 할 경우 국가의 문화정책은 실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차의 종목지정은 백번 양보하여 잊혀가고 있는 우리 차 문화를 다시 환기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찾으려는 문화재청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 차의 원형적 가치와 계보와 전승 문제를 가볍게 다루었다면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용역'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차'의 이미지, 표면적인 특징만을 활용해 손쉽게 다루고 황급히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제다의 종목 문화재 지정은 차와 제다에 대한 다면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문화의 생성 가치를 차분하게 파악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현상 무마로만 정책이 진행된다면 제2의 숭례문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제다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는 문화재 정책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제다뿐 아니라 그 어떤 무형 자산도 지키고 계승할 수 없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존립자체와도 직결된다. 〈끝〉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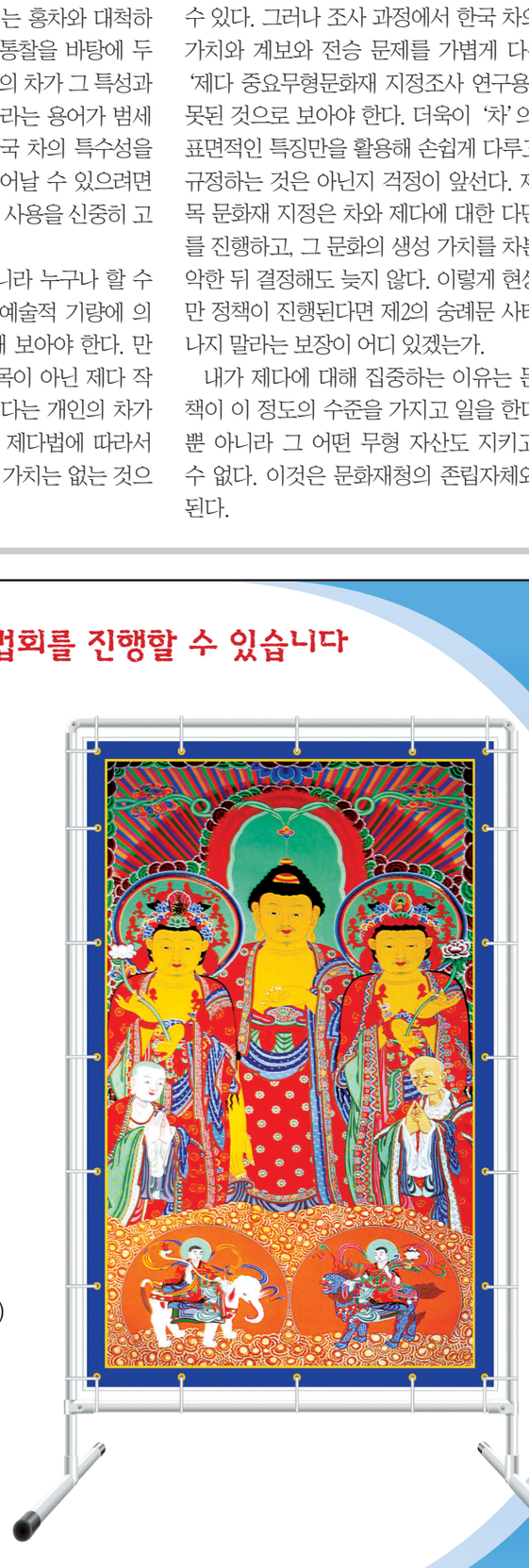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